

• 풍향계 •

북한 경제시찰단, 대덕밸리 시찰

북한 경제시찰단이 지난달 29일 생명공학연구원과 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방문했다.

시찰단 일행들은 가는 곳마다 안내하는 연구원측 인사들에게 연구상황과 연구개발 제품들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는 한편 메모를 하고 비디오로 영상을 담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김책공대 홍서현 총장은 “그동안은 남측의 수준을 잘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으니 힘을 합쳐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남기 단장은 방명록에도 ‘우리 민족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적는 등 ETRI의 세계적인 기술 수준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오길록 원장은 “한번 만나서 무엇을 하기 보다는 이제 첫 단추가 켜어졌으니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면서 “역사적인 일인 만큼 점차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행은 방문지마다 선물을 마련해 전달하는 등 성의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시찰단은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조개껍데기로 만년화가 수놓아진 액자를 선물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문에서는 옥돌공예품을 건넸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은 “북한 측의 경제발전에는 과학기술과 함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면서 “대덕밸리가 그런 점에서 북측 경제 발전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말레이시아 과학기술부장관 방문

“말레이시아서 성공모델 함께 만들어 봅시다”

“대덕바이오커뮤니티의 모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조만간 젊은 사업가들 모임에 강사로 초청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대덕바이오커뮤니티(DBC)를 방문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환경부 다토 세리 로우 히에잉 덩 장관이 던진 말이다. 공식일정을 끝내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1985년 양국간에 과학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모델”이라며 “말레이시아를 찾으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날 대덕밸리를 찾은 인사는 로우 장관과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환경부 일행 6명.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마히티르 수상이 대덕밸리를 찾은 이래 말레이시아의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우 장관의 방문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바이오 말레이시아 2002’ 전시회에 DBC를 대표해 인바이오넷이 참가한 인연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대덕밸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 인바이오넷 구본탁 사장의 DBC 및 회사 소개, 그리고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제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구 사장은 마히티르 총리에게 보내는 ‘말레이시아·대덕바이오커뮤니티 협력모델’ 제안서를 로우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인바이오넷이 제안한 내용은 말레이시아의 바이오 관련 예비 창업자를 교육시키는 장을 DBC 내에 만들어 상호 바이오 인력교류에 나서자는 것. 또한 공동기술협력 및 공동 상품화,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로우 장관은 흔쾌히 제안서를 받은 뒤 긍정적으로 검토해 상호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은 인바이오넷 생산현장과 크리스탈지노믹스, 제노텍 등의 연구실을 둘러봤다. 특히 크리스탈지노믹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컴퓨터 상에서 찾아내 약물을 개발하는 장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로우 장관 일행은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 홍창선 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인간친화복지로봇시스템 연구센터를 견학했다.

• 신제품/신기술 •

이앤비코리아, 中에 4백50만 달러 수출 계약



▲ 이앤비코리아와 오복통상의 계약체결

환경 전문 벤처기업 이앤비코리아(대표 김현용)가 중국기업과 45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앤비코리아는 중국의 환경 컨설팅 및 마케팅 전문기업인 'WUFU(오복통상)'에 3년간 450만 달러 규모의 제품공급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코팅용 광촉매 원료와 폐수처리 시스템 등으로 우선 광촉매 원료 40톤이 내년 초까지 1차로 수출되며 나머지 150여 톤은 중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거대 중국 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 회사가 수출하는 코팅용 광촉매 원료는 기존 정화방법으로 분해하기 어려운 유해물질과 난분해성 유해물질을 완전 분해시켜 폐수나 대기오염 물질의 정화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현재 북경 화공대와 상해 복단대, 청도 헤이어 그룹 등과 공동으로 적용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원료공급만이 아닌 현지 생산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용 사장은 "2010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 정화 및 수질오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수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중국 환경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앤비코리아는 서울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0년 설립된 환경 전문 벤처기업으로 한화중양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 042-865-6929

멀티미디어컨텐츠, 수능석차 정보시스템 개발

수능 시험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아 학생과 교사·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능 석차를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발됐다.

멀티미디어컨텐츠(대표 변승환)는 수험생 스스로 수능석차를 알 수 있는 수능석차 제공시스템을 특허출원해 수험생 수능서비스 사이트 '대학 가는 길' (www.univway.co.kr)을 2002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에 맞춰 정식 오픈 했다.

이 제품은 수험생들이 수능점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제 수능시험 분포도가 분석되고 이를 토대로 계열별, 남녀별, 등급별로 자신의 상세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수험생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공유해 대학진학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진학자가진단 사이트'인 셈이다.

이번 시스템은 일선 학교에서 진학지도할 때, 개인 성적표와 영역별 백분위 점수를 토대로 개인별 석차를 산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수능시험 석차 정보처리 기능을 비롯해 T·원점수변환표, 진학대학 모의전형 테스트, 내신산출 정보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시스템 오픈과 더불어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와 본인의 실제 시험결과가 동일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의 모의 전형과 최종 입학한 대학 및 학과가 일치하는 수험생들을 추첨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승환 사장은 "학교마다 교육책으로 영역별 백분위 점수를 근거로 전국단위 석차를 환산해 활용하고 있으나 전과목 통계가 아닌 영역별 통계수준에 그쳐 입시지도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형편"이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해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42-862-2943

